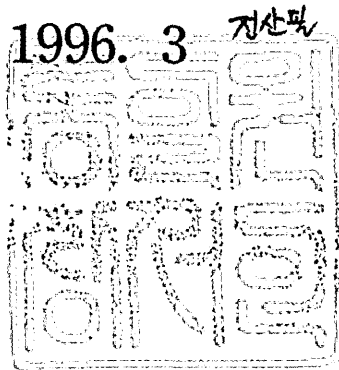


통분 96-3-9

'95년도 하반기 북한경제 동향



통 일 원

목 차

상반기 북한경제동향 요약

1. 하반기 대내경제동향	5
가. 건설부문	5
나. 농림수산업부문	11
다. 광공업부문	18
라. 수송·통신 및 과학기술부문	25
2. 하반기 대외경제동향	29
가. 대외무역	29
나. 남북교역	35
다. 나·선지구 개발 및 투자유치	39
라. 대외경제협력	42
3. 종합평가	48
※ 부록 : '95년도 하반기 북한경제일지	51

상반기 북한경제동향 요약

< '95년 경제시책방향 >

- 김일성 신년사 대신 발표한 공동사설에서
 - 석탄·전력·수송 등 『선행부문』에 계속 역점을 두면서
 - 『완충기』경제전략방침인 농업·경공업·무역제일주의 관철을 주장
- 최고인민회의(9기 8차)를 개최하지 못해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함에 따라
 - 재정의 파행적 운용이 불가피하게 됨으로써 계획적인 경제운영에 차질 초래

< 건설 및 생산활동 침체 >

- 투자부족에 따른 에너지 및 원자재 생산부진으로
 - 제조업 부문의 생산이 전반적으로 활기를 상실했으며
 - 건설활동도 정치사상적 목적의 건설공사를 제외하고는 극히 침체

- 다만 섬유·봉제 공업부문에서 남한, 일본 등의 위탁가공 제품 주문 물량 증대에 따라 생산활동이 비교적 활발
 - 남북교역에서 위탁가공 반입규모 전년동기비 57.8% 증가
 - 섬유류의 대일본 수출액 전년동기비 24.1% 증가

< 무역 감소, 무역수지 악화 >

- 상반기중 잠정평가된 무역총액은 9.3억달러로 전년동기비 6.1% 감소
 - 수출 2.5억달러, 수입 6.8억달러
- 수출 감소,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는 전년동기보다 악화

< 경제자원 외교 강화 >

- 고갈된 경제자원 확보를 목적으로 연초부터 식량, 에너지, 면화 등 자원외교를 강도 높게 추진
 - 당·정 경제대표단은 물론, 사로청, 친선협회 등 외곽 단체까지 동원, 경제자원 외교에 총력
 - 특히 심각한 식량부족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업으로 설정하고 태국·중국·인도 등 곡물수출국에 곡물도입 상담

1. 하반기 대내경제동향

가. 건설부문

- 북한은 당창건 50돌(10.10) 기념행사를 전후하여 치적 과시의 일환으로 경제건설실적을 집중 선전함으로써
 - '95년 하반기중 북한의 경제건설은 전년동기보다 크게 활발한 것처럼 보였음.
- 건수면에서 기간중 완공·조업된 북한의 총 건설실적은 전년동기의 12건보다 4.3배정도 증가한 51건으로 늘어났음.

< 북한의 경제건설실적 추이 >

1991	1992	1993	1994	1995		
				상반기	하반기	합계
85건	94건	54건	31건	14건	51건	65건

- 그러나 규모면에서는 단거리 철도전기화공사, 소규모 광산건설 등 투자규모가 작고 짧은 기간에 완공할 수 있는 소규모적인 건설대상이 주류를 이루었음.

○ 시기별로 보면

- 상반기 완공·조업실적은 총 14건으로서 전년동기 수준(19건)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
- 3/4분기부터 그 실적이 7건으로 전년동기의 4건보다 다소 상회하기 시작하였으며,
- 4/4분기에 들어서서는 당창건 50돌 기념행사와 관련 44건으로 대폭 늘어나는 특징을 보였음.

< '94~'95년도 분기별 북한 경제건설 실적 >

구분	1/4분기	2/4분기	3/4분기	4/4분기	총 계
'94년	5건	14건	4건	8건	31건
'95년	5건	9건	7건	44건	65건

- 산업별로 보면 농업·경공업·무역 등 북한의 3대제일주의 방침과 선행부문 등 당이 제시한 역점사업부문 관철을 위한 건설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음.

〈 대상별 완공·조업 건수 〉

대 상 별	건 수
○ 사상교양관련 정치선전물	10
○ 농업관련 시설	6
○ 공장 및 광산	24
○ 수송시설	7
○ 의료시설, 주택 및 기타	4
총 계	51

- 한편 북한은 경제난 심화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당창건 기념탑, 김정일 혁명사적비, 김정일화 온실 등 정치선전적 목적의 건설공사에 치중함으로써 재정의 낭비적 지출을 부추겼음.
-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의 하반기 경제건설실적은
 - 북한이 당창건 50돌을 전후하여 각종 선전매체의 경제건설실적 보도 빈도를 늘임으로써, 외형상으로는 전년동기보다 크게 활발한 것처럼 보였으나
 - 재정사정 악화와 시멘트, 강철, 기타 건재 등 연관 공장·기업소의 생산침체 등이 전년동기보다 더욱 심화되었음을 고려할 때
 - 실질적으로는 전년동기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.

〈 '95년도 하반기 주요 건설실적 〉

월별	건 설 실 적
7월	○ 없음.
8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김일성 『친필비』제막(8.11) ○ 기상수문연구소, 대동강 홍수처리 지휘체계 전산화(8.14) ○ 정평군, 저수지 건설(8.23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김정일 감사전달 ○ 천성청년탄광, 메탄가스공장 건설(8.23)
9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백두산-천지호반간 공중 여객삭도 완공·개통(9.24) ○ 용문대굴 준공(9.28) ○ 구장지구탄광연합기업소 용등탄광 갱내 장거리 벨트콘베아(2,600m) 1단계공사 완공(9.29)
10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낙원수출품 수산사업소 조업(10.1) ○ 국가과학원 함흥분원, 『분석 계기의 설계 및 개발대상』과 카르보닐화에 의한 초산제조 공정 조업(10.2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UNDP 협조 ○ 구현-인포간 전기철도 개통(10.2) ○ 문천시, 식료가공공장용 염전(10정보) 건설(10.3) ○ 철산갑문 준공(10.3) ○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, “빛나라 두만강반에 새겨진 불멸의 자욱이여” 제하 혁명사적비 건립(10.3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김정일 현지도 기념

월별	건 설 실 적
10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북제련소, 김정일 현지도 사적비 제막(10.3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길이 10.7m, 높이 3.8m ○ 강원도 『9월21제련소』, 새생산 계통 완공·조업(10.4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색금속을 처리하여 유가금속 생산 ○ 평안남도 비호광산 조업(10.4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각종 규격의 연마석, 연마용 자재 생산 ○ 회령산원 개원(10.4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건평 4,000㎡, 3층건물 ○ 평안남도 은산밀림기계톱공장 완공·조업(10.4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벌목용 기계톱과 연관부품 생산 - 연건평 4,600㎡의 생산건물과 여러동의 보조건물 ○ UNDP 협조계획에 따른 『변압기 생산 현대화 대상』, 『환경건강 위험성 통계 대상』 완공, 조업(10.5) ○ 황해남도 해주 『1월10일기계공장』 조업(10.5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건평 20,000여㎡, 광산설비 및 부속품 생산 ○ 평안남도 영월화강석 광산 조업(10.5) ○ 회령-학송간(168km) 철도전기화 완공(10.5) ○ 『로동청년사』사옥 준공(10.6) ○ 중앙보석공예창작사 조업(10.6) ○ 칠보산지구 명천군 보천리, 주택건설 110세대 완공(10.6) ○ 전자제품연합회사, 녹음기조립공장 조업(10.6)

월별	건 설 실 적
10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양철도대학, 김정일 현지도 사적비 제막(10.7) ○ 성진제강연합기업소, 현대적 구단광생산기지 완공(10.7) ○ 평안북도, 묘향산 자연바위에 “강철의 영장 김정일” 글발 새겨 제막식(10.7) ○ 풍서군, 김정일화 온실 개관(10.7) ○ 고려신덕산샘물합작공장 조업(10.7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선국제합영총회사와 총련외교상사가 운영, 연건평 10,000m² ○ 평양시 문수거리에 과학자 여관 개업(10.8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층, 연건평 20,000m² ○ 『7월6일철도공장』전강재압연차바퀴 분공장 조업(10.8) ○ 사리원타올수출품공장 완성직장 준공(10.8) ○ 당창건 기념탑 준공(10.9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김정일 시찰(10.5) ○ 청류다리 및 금릉2동굴 개통(10.9) ○ 평양-향산간 관광도로(120km) 개통(10.12) ○ 애국자석공장 조업(10.13) ○ 개성고려고추장공장 조업(10.13) ○ 평원수출피복공장 1단계 건설공사 완공·조업(10.15) ○ 라흥 채석선 철도전기화공사(4km) 완공·개통(10.16) ○ 평양 삼석구역에 김정일화 온실 건설·개관(10.18)

월별	건 설 실 적
10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순천방적공장 1단계 건설공사 완공·조업(10.19) ○ 평안북도 주택건설 실적(10.19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평성시 100여세대, 순천시 200여세대, 7개 『리』에 각각 수십세대 ○ 강선 천리마수출피복공장 조업(10.19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연건평 수천㎡, 4층 ○ 선교편직공장 염색공장 조업(10.20)
11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창성군 약수리에 김일성 현지도 사적비 건립(11.7) ○ 묘향산 『단군사』 원상복구(11.17)
12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강원도 청년수원지 준공(12.28)

나. 농림수산업부문

[생산활동 및 작황]

- '94년 하반기중 북한은 경직된 영농체계, 영농자재 부족, 근로 의욕 감퇴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가운데 단순히 노력 동원을 통한 생산력 제고에 주력하였음.

- 기획있을때마다 농장원들로 하여금 ‘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 정신으로 일하라’ 고만 강조
- 전력난과 함께 트랙터 및 연결농기계, 농약 등의 절대적인 공급 부족으로 『농촌4화』(기계화, 화학화, 전기화, 수리화) 수준은 오히려 악화
- 특히 7월 김매기철에는 ‘농민들에게 모든 힘을 김매기에 집중하여 만풍년을 이룩해야 할 것’ 이라고 강조하면서 『김매기 전투』의 질적인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였음.
- ※ 북한의 김매기는 주로 협동농장원이 소농기구로 김을 매는 원시적 방법에 의존
- 이를 위해 북한당국은 각 기관, 기업소의 종사자, 인민군 등은 물론 각급 학교의 학생들까지 농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김매기에 대거 투입하기도 하였음.
- 그러나 이와 같은 농촌지원사업은 노동할당량만 채우면 된다는 식의 형식적인 실적위주의 노동에 불과함.
- 특히 7.26~8.20간에는 3차례에 걸쳐 전례없는 집중호우가 발생, 농업생산부문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.

- 북한은 기간중 맹산 800mm, 덕천 830mm, 압록강 유역 300~500mm (8.1~8.9), 신의주 지역은 1~2시간에 400~600mm의 비가 내렸으며
- 이로 인해 압록강의 최고 수위는 8.05m(8.8)를 기록, 신의주의 지표면보다 1.7m 더 높아짐으로써 언제가 범람하였다고 발표하였음. (1935년 대홍수때의 압록강 수위는 6.8m)

※ 수재피해 실태

① 조선중앙통신 보도 종합

- 7.31~8.18간 1백년이래 처음있는 집중호우로 많은 지역들이 혹심한 피해
- 홍수가 3차에 걸쳐 발생하여 다시 조사한 결과 68명의 사망자외에 실종자 및 부상자 발생
- 12개 도·직할시의 145개군 520여만명이 피해를 입어 기초적 피해 추산액은 150억불상당
- 많은 주택, 학교, 탁아소, 병원, 기타 공공건물, 도로, 철도, 교량, 제방, 통신, 전력, 급수망, 탄광, 광산, 공장 등 생산 및 하부시설과 농토 등이 침수·파괴

② UNDHA 조사단 보고('95. 9. 12)

- 총 피해규모 : 145개 시·군에 150억달러
 - 이재민 : 총 10만세대 50만명
 - 경작지 피해 : 120만ha
 - 곡물 감수량 : 190.1만톤(쌀 108.3만톤, 옥수수 81.8만톤)
 - 곡물 유실 : 62.6만톤
 - 시설 파괴 : 저수지 102개소, 급수시설 2,804개소,
유치원 16,000개소, 학교 2,290개소
- 이에 따라 9~10월 등숙기에서부터 11~12월의 결산분배시기까지의 기간중 예년과는 달리 '95년도 농작물 작황 및 결산분배동향에 대한 공개를 일체 기피하였음.
- 10월이후 전개되는 『김장전투』에 대한 상황도 공개를 기피함으로써 배추, 무우 등 남새(채소)의 수확량 역시 크게 목표에 미달하였음을 반영
- ※ 예년에는 기간중 곡물작황이 비교적 양호한 일부지역 또는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부분적이긴 하지만 농작물 작황을 공개

○ 이를 종합해 볼 때 '95년도 북한의 농작물 작황은

- 집단영농체제의 비효율성, 농장원의 근로의욕 상실에 따른 낮은 생산성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하에서
- '95.5월까지의 동북부지역 가뭄현상과 6~7월 중순까지의 저온 현상 및 일조부족으로 작물의 초기 생육이 불량하였던데다가
- 7~8월의 집중호우 및 『제니스』태풍으로 인해 관개시설의 침수, 경지 매몰 등 극심한 수해까지 겹침으로써
- 농작물의 수확량이 평년작에 크게 미달하는 부진상을 보인 것으로 평가됨.

※ 농촌진흥청은 북한의 '95년도 곡물 총생산량을 전년비 16.3% 감소한 345만톤(정곡기준)으로 추정

〈 연도별 곡물생산 추이 〉

(단위 : 천톤)

1992	1993	1994	1995	평년작
4,268	3,884	4,125	3,451	4,143

[임업 및 수산업 동향]

- 7~8월의 하절기에는 임업부 산하 각도 임업총국, 임업관리국에 소속되어 있는 60여개의 임산사업소, 갯목생산사업소들로 하여금 통나무 생산을 늘여 '인민경제 여러부문에 보내줄 것'을 촉구 하였음.
- 『임업 노동자질』(8.10)을 맞아 임업부문 종사자들에게 통나무와 목제품 증산 강조
- 또한 동절기에도 새로운 임지조성에 수반되는 임도(林道)의 개설 작업과 임업부문 기계·설비의 수리·보수에 주력하는 가운데 벌채량 제고에 총력을 기울였음.
- 그러나 7~8월의 3차례에 걸친 집중호우, 근로여건 열악 등으로 통나무 벌채실적이 예년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부진상을 면치 못했음.
- ※ '94년 현재 북한의 연간 목재생산량은 약 300만^m이나 실제 수요에는 크게 미달하는 실적
- 이에 따라 기간중 탄광 및 광산개발에 소요되는 갯목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.

- 북한은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해 『가을철 나무심기운동』(10~11월)을 맞아 중앙의 각 기관들과 지역별로 담당림을 지정, 식수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음.
- 평안북도의 경우 도행정경제위 주관하에 320정보에 60만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주장
- ※ 북한의 식수는 봄(3~5월)과 가을(10~11월)로 나누어 실시해 오고 있음. ('63.7 내각 명령)
- 그러나 기간중 집중호우에 기인한 산사태, 땀감획득을 위한 남벌 등으로 인해 산림이 더욱 황폐해진 것으로 보임.
- 한편 수산업부문에서는 기간중 『김정일의 영도』아래 수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고 특히 당의 무역제일주의 방침관철을 위해 수출품 생산에 주력하였음.
- 그러나 연근해 정착성 어자원 감소, 어로장비 노후, 어로기술 낙후 등과 함께 극심한 유류난으로 생산실적은 목표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보임.
- '90년대들어 북한어선의 출어율은 30%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어획고는 매년 감소 추세(연간 어획량: '90년 145.4만톤 → '94년 99.8만톤으로 감소)

- 따라서 북한은 『잡는 어업』보다는 『기르는 어업』에 역점을 두고 대일본 주종 수출상품인 김, 다시마, 대합 등 천해양식부문의 증산에 주력하였음.
- 대외적으로는 수산부대표단(단장: 부부장 한룡운)이 12.11~22 『조·러 어업공동위원회 제9차회의』에 참가하여 러시아와 수산업부문의 공동발전 방안(특히 원양어업)을 협의하였음.

다. 광공업부문

[경제선동 동향]

- '95년 하반기중 북한은 각 공장·기업소별로 『창립기념보고회』, 『김부자 현지도 기념보고회』 등을 연이어 개최하고 해당 근로자들에게 김일성 『유훈』관철 촉구와 함께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촉구하였음.
- 당창건 50돌 기념일(10.10)을 전후하여서는 각종 선전매체의 경제건설실적 보도 빈도를 대폭 늘임으로써

- 『로동당 치적』의 집중적인 과시를 통해 김정일 중심의 체제 결속을 강화하고 저하된 공장, 기업소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음.
- 또한 김정일의 『일(日) 생산 및 재정총화 방침』제시 25주년 기념보고회(11.11) 및 『전국재정일꾼 경험토론회』(11.13)를 개최, 근로자들이 매일 기업의 생산총화 및 관리에 적극 참여토록 하는 등 주인정신의 주입에 주력하였음.
- 11월 이후부터는 창립(또는 김부자 현지도) 50주년이 되는 각급 기관·기업소들을 대상으로 기념보고회를 집중적으로 개최, 이를 통해 당창건 50주년 기념행사로 조성된 정치·경제적 분위기를 고조시키려 하였음.
- 11~12월중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, 평양 기관차대 등 총 30여개의 각급 기관·기업소에서 창립(현지도) 50주년 기념보고회를 연이어 개최
- 한편 북한은 11.29~30 평양 『4.25 문화회관』에서 이종욱(부주석), 한성룡(당중앙위 비서), 최태복(당중앙위 비서), 최영립(정무원 부총리) 등 당·정 고위간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제1차 대회('86.11.18) 이후 9년만에 제2차 『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선구자대회』를 개최하였음.

- 이종욱은 『축하문』을 통해 동대회를 정치적으로는 『충성의 대회』로, 경제적으로는 『진군의 대회』라고 성격 규정하였으며
- 김기남의 『보고』에서는 김정일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발기자·영도자로 추켜세우면서 모든 근로자들이 김정일을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강조하는 등 체제 공고화에 주력하였음.

※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: '75.11월 노동당 제5기 11차 전원회의에서 사상, 기술, 문화 등 3대혁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된 이래, 북한의 모든 공장·기업소·협동농장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인 노력경쟁운동

○ 이로 볼 때 북한의 '95년도 하반기 경제선동은

- 각종 출판·보도 수단 등 선전매체를 통한 군중선동과 함께 근로단체조직을 통한 사상교양사업을 앞세우고
- 이를 정춘실운동, 모범기대 창조운동 등 기존의 노력경쟁운동에 밀접히 결부시키는 가운데
-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체제결속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동향을 보였음.

[생산동향]

- '95년 하반기중 북한의 광공업은 7~8월의 극심한 수재피해에다가 9월이후의 가뭄에 기인한 공업용수 부족까지 겹쳐 전반적으로 전년동기보다 생산이 위축되었음.
 - '95.9~12월 기간중 북한 전역의 강수량이 예년보다 평균 80mm 이상 감소
- 다만, 경공업제일주의 방침에 따라 수출용 경공업제품 생산에 주력한 결과, 생산활동이 여타 산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음.
 - 김정일은 10.9 평양창광옷공장과 경암산수출피복공장에 감사전달
 - 당중앙위는 10.19 선교편직공장에 감사문 전달
- 특히 섬유·봉제공업부문에서 남한, 일본 등의 위탁가공 주문물량 증대에 따라 비교적 활발한 생산동향을 보였음.
 - 기간중 남북교역에서 북한으로부터의 위탁가공 반입규모(승인 기준)가 전년동기보다 22.2% 증가한 785만달러를 기록하였으며
 - 대일본 수출실적도 위탁가공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섬유류의 경우 전년동기보다 33.6% 증가한 80.4억엔을 기록

- 이와 함께 경공업부문 수출공장의 시설확장 및 현대화를 통해 취약한 수출품생산 기반을 향상시키려는데 주력하였음.
- 지방공업부문에서도 당의 무역제일주의 방침에 따라 지방의 내부 예비를 동원하여 수출품 증산에 역량을 집중하였음.
 - 특히 돌공예품, 약초, 초물제품 등 자급이 가능한 원료를 이용한 수출품 생산에 주력
- 그러나 주민생활 향상과 직결된 내수부문에서는 중앙당국이 뚜렷한 신규 투자나 원자재 공급없이 지방 자체적으로 해결토록 함으로써 생산이 극히 부진하였음.

〈 '95년 하반기중 북한의 경공업 시설 확장 동향 〉

일 자	내 용
10. 6	○ 중앙보석공예창작사 조업
10. 6	○ 전자제품연합회사 녹음기 조립공장 조업
10. 7	○ 고려신덕산샘물합작공장 조업
10. 8	○ 황해북도 사리원타올수출품공장 완성직장 준공
10. 13	○ 개성고려고추장공장 완공·조업
10. 15	○ 평안남도 평원수출피복공장 1단계 공사 완공
10. 19	○ 평안남도 순천방적공장 1단계 공사 완공
10. 19	○ 남포시에 강선천리마수출피복공장 완공·조업
10. 20	○ 평양시 선교편직공장 염색직장 조업

- 선행부문인 석탄공업부문과 광업부문에서는
 - 7~8월의 수재시 탄광의 낙반·붕락사고, 갱내 출수사고 등으로 상당기간동안 생산이 중지된데다가 집중호우로 채탄장의 석탄까지 상당량 유실됨으로써
 - 기간중 생산량이 전년동기보다 더욱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.
- 전력공업부문에서는
 - 수력의 경우 7~8월에는 집중호우로 인한 저수량의 증가에 힘입어 전력생산이 증가하였으나 9월이후부터 계속된 가뭄현상으로 겨울철에 전력생산 여건이 악화되었으며
 - 화력의 경우에도 장마시기의 채탄환경 악화와 사회간접시설 파괴로 인한 수송애로 등으로 석탄공급이 부진, 발전량이 크게 줄어들었으므로
 - 기간중 총전력생산량은 전년동기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음.
- 기간중 원유, 코크스 등 광물성 연료의 수입규모는 전년동기보다 금액면에서는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였으나
 - 기간중 국제가격 상승을 고려할 때, 물량면에서는 크게 늘어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임.

※ 에너지 의존도가 가장 큰 중국으로부터의 광물성 연료 수입규모가 전년동기의 0.8억달러에서 1.1억달러로 14.0% 증가

- 기계·금속·화학·건설 등 북한의 기간산업부문에서는
 - 에너지 부족, 기초 및 중간 원료의 공급부족, 기술 낙후 등에다가
 - 7~8월의 수재시 철도, 도로 등 주요 사회간접시설의 파괴로 인한 극심한 수송애로와 9월이후 가뭄으로 인한 공업용수 부족까지 겹쳐
 - 예년보다도 공장 가동율이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.

- 이상을 종합해 볼 때 '95년도 하반기중 북한의 광공업부문은
 - 대부분의 공장·기업소들이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부족, 노동의욕 상실 등으로 수시로 조업이 중단되는 등 구조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
 - 7~8월의 집중호우 및 제니스 태풍의 피해, 그리고 9월이후의 가뭄현상 등 경제외적 요인이 생산활동에 타격을 줌으로써 전년동기의 생산침체가 더욱 악화되었다고 하겠음.

라. 수송·통신 및 과학기술부문

[수송·통신]

- '95년 하반기중 북한은 7~8월의 수재에 따른 철도노반 침하현상, 도로 및 다리 파괴, 통신시설 파괴 등으로 수송실적이 극히 저조하였음.
 - 북한은 7~8월의 수재로 도로 75,955개소, 다리 3,842개 등이 파괴되었으며 전기시설 및 통신시설의 피해도 심각했다고 주장
- 특히, 수재로 파괴된 철도, 도로 등 수송시설의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『5.18 무사고 정시견인 초과운동』 등 기존의 노력경쟁운동에 주로 의존함으로써 구조적인 수송애로를 더욱 부추겼음.
- 기간중 철도건설 실적을 보면
 - 함북 회령~학송(168km) 철도전기화 2단계 공사로 추진되어 온 남양~학송(88km) 철도전기화 공사를 완공·개통한 것외에
 - 구현~인포(4km), 라흥 채석선(4km) 등 일부 철도지선을 전기화 하는데 그쳤음.

○ 도로수송에 있어서는

- 김정일의 주요 관심사업이었던 평양-향산간(120km) 관광도로의 건설로 묘향산일대 관광개발을 촉진시키고 안주탄전을 중심으로 한 서북부 공업지역의 수송애로를 다소나마 해소시킬 수 있게 되었으나
- 전반적으로는 수재로 인한 도로 시설물 파괴 및 유류의 절대부족 등으로 수송실적이 전년동기 수준을 크게 미달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원거리 수송실적이 저조하였던 것으로 분석됨.

[과학기술]

- 북한은 8.2 인민문화궁전에서 최태복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일의 『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』 발표 10주년 기념보고회를 개최하였음.
- 그러나 동 보고회는 과학기술개발 실적이나 선진기술도입의 성과에 대한 언급을 기피한 채 김정일 찬양으로만 일관함으로써, 내용 없는 정치선동행사로 끝나고 말았음.

- 그동안 김정일은 과학기술적 문제를 잘 풀어야 자력갱생의 원칙도 잘 관철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당면한 경제난 해소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과학기술 도입을 역설하여 왔음.
 - “설비 이용율을 높여 짧은 기간에 설비값을 뽑아내고 보다 능률적인 설비를 차려 놓아야 하며 해외로부터는 기계설비를 5~10년을 주기로 갱신할 것” (『사회주의 경제와 균형』, 1990, p.235)
 - “과학기술발전을 위해 합영, 합작을 해서라도 선진 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하라” (『과학기술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』, '91.10.28)
- 또한 북한은 김정일 주도로 2차에 걸친 『과학기술발전 3개년계획』 (1차 : '88.7월~'91.6월, 2차 : '91.7월~'94.6월) 및 과학기술 부문의 중장기 계획인 『2000년 과학기술 전망목표』 등을 추진한 바 있음.
- 김정일은 기간중에도 과학기술분야의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연구 집단에 『감사』를 무더기로 전달하는 등 여전히 강도높은 의욕을 나타냈음.
 - 김책공대 및 평양철도대학 과학연구집단에 감사 전달(8.13)
 - 중앙과학기술홍보사와 농업과학기술원 수의학연구소·축산학연구소에 감사 전달(12.15)

- 한편 북한은 재래방식의 기상관측 및 예보기술의 낙후로 기상자료 분석의 정확성과 예보의 신속성이 크게 뒤떨어져 홍수피해가 막대한 현실을 인식하고
 - 기상수문연구소의 대동강 홍수처리 지휘체계를 전산화(8.14)하는 한편
 - 중국과는 쌍방 기상국간에 『기상과학 기술협조에 관한 합의서』(12.25)를 조인, 기상과학·기술의 발전을 도모하였음.
- 그러나 대외과학기술도입 및 협력에 있어서는 10.23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과 『과학기술협조협정』을 체결한 것외에는 뚜렷한 동향을 보이지 않음으로써
 - 중국, 이란, 러시아 등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의 교류·협력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상반기에 비해 정책적 의욕이 크게 저하되었음을 반영하였음.
- 이상을 종합해 볼 때 북한은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과학기술발전에 대해 상당한 의욕을 갖고 있었으나
 - 하반기 들어서면서 부터 구조적인 경제난의 지속, 수재피해 등으로 과학기술정책 추진력이 급격히 위축됨으로써 그 성과가 매우 부진하였던 것으로 분석됨.

2. 하반기 대외경제동향

가. 대외무역

- '95년도 하반기중 북한의 무역실적은 대일본 교역액은 증가하였으나 중국, 러시아 등 주요 무역대상국과의 교역이 감소함으로써 전반적으로는 전년동기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잠정 평가되었음.
- 무역구조 분석결과, 기간중 북한의 무역실적은 전년동기 수준인 11.3억달러(수출 3.4억달러, 수입 7.9억달러)로 잠정 평가

< '95년 하반기 북한의 대외무역액 잠정 평가 >

(단위 : 억달러)

구 분	총 액	수 출	수 입
중 국	2.8(2.9)	0.3(0.8)	2.5(2.0)
일 본	3.5(3.1)	2.0(2.1)	1.5(1.0)
러시아	0.3(0.8)	0.0(0.3)	0.3(0.5)
기 타	4.7(4.5)	1.1(1.6)	3.6(2.9)
총 계	11.3(11.3)	3.4(4.8)	7.9(6.4)

주 : ()내 수치는 전년동기 북한의 무역실적

[중 국]

- '95년도 하반기중 북한의 대중국 무역실적은 2.8억달러로서 전년 동기 수준을 다소 밑돌았음.
 - 대중국 수출은 전년동기비 34.7% 격감한 2천 9백만달러에 불과
 - 대중국 수입은 전년동기비 22.1% 증가한 2.5억달러를 기록
- 특히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수출은 대폭 감소한 반면 수입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무역 불균형이 심화되고 무역 적자폭이 늘어난 것이 특징임.
 - 기간중 대중국 무역적자액은 전년동기의 1억 2,007만달러에 비해 1.8배 늘어난 2억 1,961만달러 기록

< '95년 하반기 북한의 대중국 무역실적 >

(단위 : 천달러, %)

구 분	'95년 하반기	'94년 하반기	증 감 율
총 액	277,707	287,263	△3.3
수 출	29,047	83,598	△34.7
수 입	248,660	203,665	22.1

※ 자료 : 中國 海關統計 ('95.12월호)에서 작성

※ 주 : 중국의 FOB, CIF 기준 통계

- 기간중 북한의 대중국 주요 수출상품은 철강, 수산물, 광산물, 비료, 목재품 등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품목의 수출규모는 전년 동기보다 줄어들었음.
 - 다만 주요 수출품중 가장 비중이 큰 강철은 중국측의 건설수요 증가에 힘입어 전년동기보다 대폭적인 증가세를 기록
- 반면 북한의 수입상품을 살펴보면 방직용 섬유원료, 전기기기 등이 수입증가를 주도하여 수입규모가 전년동기보다 22.1% 늘어났음.
- 최근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과 관련, 기간중 곡물 수입실적을 보면
 - 중국측의 흉작에 따른 곡물수출금지조치('95.7월), 북한의 어려운 외환사정 등으로 인해 7~8월의 수재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의 1,483만달러에서 57만달러로 대폭 줄어들었음.
- 또한 북한의 에너지난과 관련, 기간중 원유, 코크스 등 광물성 연료의 수입액을 보면
 - 상반기와는 달리 전년동기의 0.8억달러에서 1.1억달러로 14.0% 늘어났으나

- 이는 기업차원의 거래에 따른 대중국 수입가격의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서
- 기존의 원유수입대금 미상환 등 제반여건에 미루어 볼 때 수입 물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.

[일 본]

- '95년 하반기중 북한의 대일무역실적은 3.5억달러로 전년동기보다 12.9% 증가한 것으로 잠정 평가되었음.
- 대일수출은 2.0억달러로 전년동기비 4.8% 감소
- 대일수입은 1.5억달러로 전년동기비 50.0% 증가

< '95년 하반기 북한의 대일본 무역실적 >

(단위 : 억달러, %)

구 분	'95년 하반기	'94년 하반기	증 감 율
총 액	3.5	3.1	12.9
수 출	2.0	2.1	△4.8
수 입	1.5	1.0	50.0

※ 자료 : 東アツア經濟情報(1月號)를 기초로 한 추정결과

※ 주 : 일본의 FOB, CIF 기준 통계

- 그러나 대일본 수입의 대폭적인 증가로 북한의 대일본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동기보다 크게 감소하였음.
- 대일본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동기의 1.1억달러→ 5천만달러로 격감
- 기간중 북한의 대일본 주요 수출상품은 위탁가공용 섬유제품, 식물성 생산품(송이버섯), 동물성 생산품(생선), 비금속제품(철강, 연·아연피), 광물성 생산품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.
- 북한의 주요 수입상품을 살펴보면 방직용 섬유원료, 기계류, 전기기기, 수송기기, 플라스틱·고무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.

[러시아]

- '95년 1~6월까지 북한의 대러시아 무역실적을 보면 전년동기보다 41.1% 격감한 총 3,300만달러에 불과함.
- 대러시아 수출은 전년동기비 72.7% 격감한 150만달러에 불과
- 대러시아 수입은 전년동기비 37.6% 감소한 3,150만달러를 기록

- 이와 같은 러시아와의 교역은 수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주요 수입상품은 자동차 및 기계설비 등 목재가 수입총액의 87.6%를 차지하였음.

- 북한의 주요 수출상품은 소비재와 기타 잡품임.

- 따라서 최근 북한의 대러시아 교역 급감추세를 감안할 때, 하반기 중의 교역실적은 총 3천만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됨.

[기타국가]

- 홍콩과는 '95년 1~9월 기간중 수출은 전년동기보다 15.1% 감소한 반면 수입은 8.7% 증가, 전반적으로 볼 때 0.1% 증가한 6,421만달러(수출 1,965만달러, 수입 4,455만달러)를 기록하였음.
- 인도와는 '95 3/4분기중 수출 2,897만달러로, 수입 1,779만달러를 기록, 교역액이 전년동기보다는 크게 증가하였음.
- 이태리와는 '95년 8월말 현재 수출 322만달러, 수입 1,968만달러를 기록함으로써 교역실적은 미미하지만 무역수지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냈음.

- 독일과는 '95년 8월말 현재 수출 2,683만달러, 수입 2,276만달러를 기록, 407만달러의 무역흑자를 나타내었음.
- 덴마크와는 '95년 1~9월중 수출 94만달러, 수입 140만달러를 기록하는데 그쳤음.
- 포르투갈과는 '95년 1~9월중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여 총 20만달러의 무역실적을 나타냈음.
- '95년도 하반기중 여타국과의 교역규모는 무역구조 분석결과 수출 1.1억달러, 수입 3.6억달러로 총 4.7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.

나. 남북교역

[하반기 실적]

- '95년도 하반기 남북한 교역실적(통관기준)은 138,951천달러로서 전년동기 112,152천달러에 비해 23.9%가 증가하였음.
 - 반입 통관실적은 전년동기보다 4.9% 증가한 107,604천달러
 - 반출 통관실적은 전년동기보다 226.1% 증가한 31,347천달러

- 특히 기간중에는 남한이 무상제공하기로 한 쌀 15만톤을 북측에 전량 인도하였는 바, 이를 포함할 경우
 - 대북 반출실적은 전년동기보다 26.2배로 대폭 증가한 251,458천 달러에 이르게 되며
 - 이에 따라 총 남북교역규모는 전년동기 실적보다 3.2배 증가한 359,062천달러에 이름.

〈 '95년 하반기 남북교역 실적(통관기준) 〉

(단위 : 천달러, %)

구 분	'95.7~12월	'94.7~12월	증 가 율
총교역 규모	138,951 (359,062)	112,152	23.9 (220.2)
반 입	107,604	102,540	4.9
반 출	31,347 (251,458)	9,612	226.1 (2,516.1)

주 : ()내는 대북 쌀지원을 포함한 수치임.

- 남북교역 승인 규모중에서 위탁가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반입에서는 12.2%, 반출에서는 28.1%, 전체 규모에서는 14.2%를 차지, 상반기보다는 다소 줄어듸었음.
- 주요 위탁가공품목 : 각종 직물, 남성용 자켓, 바지, 셔츠 등

- 한편 『남북경제협력활성화 조치』('94. 11. 8)에 따라 기간중에는 위탁가공을 위한 설비(TV 스피커 조립라인)가 처음으로 반출되었고, 기술자 방북과 시범적인 경협사업 승인이 이루어졌음.

['95년도 남북교역 종합]

- '95년도 남북교역 규모는 승인기준 309,826천달러로 전년비 35.3% 증가하였으며, 통관기준으로는 287,290천달러로 전년비 47.7% 증가하였음.
- 특히 무상반출된 쌀 15만톤을 포함하면 남북교역규모는 524,503천달러에 이르게 됨.

< '95년도 남북교역실적 >

(단위 : 천달러, %)

구 분	'95년도		'94년도		증 가 율	
	승 인	통 관	승 인	통 관	승 인	통 관
총규모	309,826	287,290 (524,503)	228,944	194,546	35.3	47.7
반 입	236,075	222,855	203,521	176,298	16.0	26.4
반 출	73,751	64,435 (301,648)	25,423	18,248	190.1	253.1

주 : ()내 수치는 대북 쌀지원을 포함한 수치

- 교역수지면에서는 '95년에도 계속하여 반입초과 현상을 보였으나, 반입 대 반출비율이 '94년의 8:1에서 3.2:1로 변화하여 반출의 비중이 상당폭 증가하였음.
- '95년도 반입 초과액은 전년도 수준인 158,400천달러에 불과
- 이와 같은 반출입 구조의 변화는 위탁가공교역의 확대에 따른 원부자재 반출 증가와 더불어 설탕·밀가루·라면 등 생필품, 동정광, 기계전자제품 등의 반출이 크게 증가하고, KEDO에서 대북지원을 위해 중유 12만톤을 반출하였기 때문임.
- 반입통관 품목구조는 철강금속이 74.3%, 섬유류 13.0%, 농림산물 8.0%, 광산물 1.3%, 수산물 1.2%, 초제방석·먹는샘물·미술 공예품·주류·당면 등 기타 2.2%임.
- 반출통관 품목구조는 섬유류 60.2%, 화학제품 18.0%, 기계전자 2.8%, 철강재 2.4%, 농수산물 1.3%, 설탕·패트병·여자구두 등 기타 15.3%임.
- '95년도 위탁가공교역은 반입 승인액 기준 26,490천달러로 전년 보다 59.6% 증가하였음.
- 전체 반입승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.2% → 11.2%로 증가

다. 나·선지구 개발 및 투자유치

- 네델란드의 금융보험그룹인 ING(International Nederlanden Group)는 하반기부터 다국적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
 - 북한에 대한 시장 선점과 투기성 투자를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하였음.
 - ※ 지금까지 북한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서방측 금융기관으로는 ING와 홍콩의 Peregrine사임.
- 이에 따라 ING은행은 12.5 서방은행으로서는 처음으로 평양에서 개소식을 갖고 공식적인 영업활동에 들어가게 되었음.
 - 북한지점의 공식명칭 : ING-North Asia Bank
- 또한 영국의 Shell Pacific 기업대표단(단장: Steven Cox 동회사 북경주재 사무소장)은 나진·선봉지대를 시찰하고 용수리 일대에 원유저장시설 등을 건설하기로 하였음.
 - Shell측은 용수리에 10만톤규모의 원유저장 및 공급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우선 200만달러를 투자키로 결정

- 기간중 나진-선봉지대의 개발현황을 보면
 - 나진·선봉지대의 원정리와 중국의 경제특구인 훈춘시 권하를 연결하는 북한·중국간 국경통로가 개통되었으며(9.4)
 - 함북 회령-학송간 철도전기화공사(10.2) 완공으로 북부지구 철도윤환망이 모두 전기화됨으로써, 나진·선봉의 취약한 수송망이 보강되었음.

- 기간중 북한은 미국, 중국 등지에서 투자설명회,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서방기업이 나진·선봉지역 개발에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하였음.
 - 8.4 L.A. 한인타운 하버드 그랜드호텔에서 투자 세미나 개최
 - 9.22~25 중국 북경에서 나진·선봉 투자유치 세미나 개최
 - 12.8 미국 뉴저지주에서 투자설명회 개최

- 한편, 9.24 북한은 영국에 처음으로 투자유치 사절단(단장: 대외경제협력추진위 김문성 서기장)을 파견하여
 - 영국이 나진·선봉내 현대적 통신망 구축, 공항 건설 등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투자에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하였음.

- 또한 11.6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는 일본의 동아시아무역연구회 대표단(단장:本間 회장)을 초청,
 - 공진태(대외경제담당 비서), 이성대(대외경제위원장), 조원명(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장) 등 당·정 고위간부들과 의견을 교환하고
 - 북한의 봉제, 철강, 기계, 전기공장, 인프라 등을 시찰한 후 쌍방이 북한·일본간의 경제협력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노력한다는 내용의 공동 보도문을 발표하였음.

- 그러나 이와 같은 북한당국의 강도 높은 해외 자본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음.
 - 남한 기업을 포함한 서방기업들은 현지 여건을 조사하는 정도에 불과, 실질적인 투자에는 소극적인 입장
 - 9.24 김문성(대외경제협력위 서기장)은 나진·선봉지역에 약 2억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허가되었으나 그중 실제 투자규모는 2천만달러에 불과하다고 언급하였으며
 - 12.8 미국 뉴저지주 투자설명회에서 임태덕 대외경제정책위 부위원장은 나진·선봉지대에 13개 대형 공장, 46개 중·소공장의 합작·합영이 추진중에 있고 조업중인 것은 중국과 합영한 6개 공장뿐이라고 밝혔음.

- 한편, 북한은 '92~'95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중에도 외국투자
와 관련한 법령정비를 계속하여
 - 7.13 『합영법 시행규정』, 『자유경제무역지대 중계집임대자
대리업무규정』 등을 정무원 결정으로 채택하였음.

라. 대외경제협력동향

- '95년도 하반기중 북한은 7~8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극심
함에 따라 당·정 기구 및 외곽단체들을 총동원, 국제사회로부터
경제적 지원을 획득하는데 주력하였음.
- UN은 북한의 요청에 따라 UNDHA를 중심으로 구성된 유엔 재난
평가 조정팀(UN Assessment Mission)을 8.29~9.9간 수재지역에
파견하고
 - 이들이 작성한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대북한
지원을 위해 긴급 지원기금의 모금을 시작하였음.
- 12.21 현재까지 UNDHA, FAO 등을 비롯한 국제기구, 각국 정부,
민간단체들이 북한에 지원한 모금액과 물자의 규모는 총 2,576만
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음.

- 그러나 이와 같은 국제사회의 지원규모는 북한측이 주장하는 피해액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(0.2%미만)한 것임.
- 기간중 북한의 대외경제협력활동은 표면상 전년동기보다 비교적 활발한 것처럼 나타났음.
 - 기간중 가시적으로 나타난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관련 협정 체결 건수는 7건으로 전년동기의 5건보다 증가

〈 '95년도 하반기 북한의 주요 경제협력협정 체결 현황 〉

시 기	대 상 국	내 용
9. 25	중 국	기상과학기술 협조에 관한 합의서
10. 4	리 비 아	경제·문화분야의 협조에 관한 의정서
10. 23	유 고	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서
11. 13	루마니아	협조에 관한 의정서
11. 15	유 고	"
11. 20	마케도니아	"
12. 1	중 국	조·중 수력발전회사 이사회 제48차 정기회의 결정서

- 그러나 내용면에서는 대부분이 구체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합의라기 보다 형식적이거나 상징적인 『친선 협조』에 그침으로써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하였다고 하겠음.

- 다만, 미국, 일본을 대상으로 하여 쌍방간의 경제관계 발전을 위해 『공동 보도문』을 발표하는 등 대미·일 경제접근을 모색하였다는 점이 주목됨.
 - 9월중에는 KEDO-북한 경수로 회담에 따른 『공동 보도문』(9.12)에 이어 미·북 연락사무소 개설관련 『공동 보도문』을 발표(9.30)하였으며
 - 11월중에는 북한의 『국제무역촉진위원회』(위원장 조원명)가 방북한 일본 『동아시아무역연구회』와 쌍방간의 경제무역관계 문제를 논의하고 『공동 보도문』(11.10)을 발표하였음.

- 이러한 『공동 보도문』발표는 상징적이기는 하나
 - 향후 북한이 대미·일 경제교류협력을 본격화 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.

- 전반적으로 볼 때 '95년도 하반기중 북한의 대외경제협력활동은
 - 서방국가들의 경제적 실리추구 경향으로 북한과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기피함에 따라
 - 수재피해를 앞세워 국제사회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호소하는 한편,
 - 경수로 건설, 북한·미국간의 연락사무소 개설 등 현안 문제와 관련 대미·일 경제접근을 적극 시도하였다고 하겠음.

〈 '95년도 하반기 북한의 주요 경제협력 활동 〉

시 기	내 용
7. 3	○ 프랑스 경제사절단(단장: 구라파-북한관계촉진협회 부위원장 뻬에르세이라) 북한 방문
8. 8	○ 네팔 공보 및 체신대표단, 귀국
8.15 ~19	○ UN 식량 및 농업기구 국장 M.V. 스카이에 방북
9. 2	○ 수재조사관련 스위스 외무성 방북 대표단 귀국
9. 2	○ 수재조사관련 UN식량농업기구·UN아동기금조사단 평양도착
9. 6	○ 카리타스 국제협조국장, 수재피해 시찰후 귀국
9. 9	○ 유엔식량농업기구, 유엔아동기금, 유엔인도주의 사업국 수재조사단 귀환
9.11	○ 국제적십자, 국제적신월사, 국경없는 의사단체 수재조사단, 귀환
9.12	○ IAEA대표단 방북

시 기	내 용
9.12	○ KEDO-북한 경수로회담, 공동보도문 발표
9.16	○ 독립국가협동체 직업동맹 총연맹 대표단 귀국
9.25	○ 기상수문국, 중국 기상국과 『기상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합의서』조인
9.27	○ 대외경제위원회 대표단 스위스에서 귀환
9.30	○ 미·북 연락사무소 개설관련 공동 보도문 발표
9.30	○ 당대표단(단장: 당 중앙위 김양건 부부장), 아시아 순방후 귀국
9.30	○ 외교부 대표단(단장: 최우진 부부장), 파키스탄·인도 방문후 귀국
10. 4	○ 북한-리비아, 공동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최 및 『경제·문화분야의 협조에 관한 의정서』, 『'95~'97년도 공보 및 문화협조 집행계획서』조인
10.14	○ 직맹대표단(단장: 직총중앙위원장 주성일), 세계직업연맹 위원장 이사회의 참가차 키프러스 향발
10.16 ~26	○ 농근맹 대표단(단장: 위원장 최성숙), 중국 방문
10.17	○ 제일 조선인 상공인 대표단 귀국
10.21 ~24	○ 유고연방정부 과학기술대표단(발전과학·환경보호상 얀꼬 라를로 위츠), 평양 도착 - 『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서』조인(10.23)
10.17 ~23	○ 미술·수공예품 전람회, 멕시코 국회의사당에서 진행
10.24	○ UNDHA 대표단 평양 도착
10.24	○ KEDO 원자력발전소건설 부지조사단 평양 도착

시 기	내 용
11. 4	○ 세계식량계획대표단 평양 도착
11. 8	○ 유엔아동기금 대표단, 평양 도착
11.11	○ 북한-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일본 동아시아무역연구회간 공동 보도문 발표
11.13	○ 북한-루마니아간 협조에 관한 의정서 조인
11.15	○ 북한-유고간 협조에 관한 의정서 조인
11.18	○ 노동당 대표단(당비서 황장엽), 영국 방문차 평양 출발
11.20	○ 북한-마케도니아간 협조에 관한 의정서 조인
11.20	○ 전력공업부 대표단(단장: 부부장 박을영) 중국 방문
11.21	○ 사로청 대표단(단장: 위원장 최룡해) 일본 방문
12. 2	○ 경제대표단(대외경제위 부위원장 김정우), 두만강지역 개발계획 관리위원회 제6차회의(미국 뉴욕) 참가차 평양 출발
12. 1	○ 조·중 수력발전회사이사회 제48차 정기회의 결정서 조인
12. 7	○ 사로청 대표단(위원장 최룡해), 일본 방문후 귀환
12.11 ~22	○ 수산부 대표단(부부장 한용운), 조·러 어업 공동위원회 제9차회의 참가
12.16	○ 제13차 KEDO 부지조사단, 평양 도착

3. 종합평가

- '95년도 북한의 경제시책은
 -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완충기('94~'96년) 과업수행과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원인 선행부문의 생산정상화에 초점을 맞추었음.
- 그러나 '95년도 하반기중 북한경제는 상반기의 경제침체가 호전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심화된 것으로 평가됨.
 - 대내적으로는 체제의 경직성, 생산의욕 감퇴 등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7~8월의 집중호우, 9월이후의 가뭄현상 등 경제외적 요인까지 겹쳐 생산이 전반적으로 활기를 잃었으며
 - 대외적으로도 북한의 대내적인 경제침체와 맞물리면서 무역이 일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동향을 보였음.
 - 대외개방면에서는 북한당국의 적극적인 해외 자본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방기업들이 실질적인 투자에 소극적 입장을 보여 뚜렷한 성과가 없었음.
- 특히 7~8월의 수재피해는 식량사정 악화와 함께 주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파괴에 따른 부문간 유기성 상실로 기간산업부문의 생산침체를 크게 가중시켰음.

- 북한은 마카오에서 개최된 『동북아시아의 에큐메니칼 나눔과 연대회의』('96.2.1)를 통해
 - 식량문제의 심각성과 아울러 파괴된 도로, 교량, 전기, 통신 등 『하부망 구조』복구의 긴급성을 호소하는 등
 - 생산이 수재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많은 투자재원과 시간이 필요함을 역설
- '95년도 북한의 대내 경제를 산업부문별로 보면
- 농업부문은 집단영농체제의 비효율성, 농장원의 근로의욕 상실 등 구조적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7~8월의 집중호우로 인한 극심한 피해까지 겹쳐 농작물의 수확량이 평년작에 크게 미달하였으며
 - 건설부문은 당창건 50주년 행사(10.10)의 일환으로 치적 부각을 위해 10월중 경제건설실적을 집중선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시멘트, 강철 등 연관 산업의 생산침체로 전년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.
 - 광공업부문 역시 7~8월의 수재피해,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, 9월이후 가뭄현상에 따른 공업용수 부족 등으로 생산이 전반적으로 극심한 타격을 입었다고 하겠음.

- '95년중 북한의 대외무역실적은
 - 중국·일본·러시아 등 주요 무역대상국들의 '95년도 무역관계 자료를 감안해 볼 때
 - 대부분의 국가들과의 수출입 실적이 전년보다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수출이 대폭 감소하는 특징을 보임으로써
 - 무역수지가 더욱 악화됨은 물론 총교역량도 전년도 실적인 21.1억 달러 수준에도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임.

- 특히 북한의 3대교역국들과의 교역은 중국 및 러시아는 그 실적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일본은 증가세를 기록함으로써
 - 일본이 '95년도에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최대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한 것으로 보임.

- 따라서 완충기('94~'96년)의 두번째 해를 맞이한 '95년도 북한의 경제는
 - 상반기의 경제침체가 7~8월의 수재피해 등 경제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하반기에 더욱 심화됨으로써
 - 전년($\Delta 1.7\%$)보다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됨.

〈부 록〉

'95년도 하반기 북한경제일지

- 7.1 · 검덕광업연합기업소(금골분광산) 및 용양광산(백금산 마을), 김정일의 현지도 20돌 기념 김정일 명제비 건립·제막
- 검덕광업연합기업소, 김정일의 현지도 20돌 기념보고회 개최(6.30) 보도
- 용양광산, 김정일의 현지도 20돌 기념보고회 개최(6.30) 보도
- 김일성의 위대성에 관한 농근맹 일꾼들 및 농근맹원들의 연구 토론회 개최(청년중앙회관)

- 7.2 · 체신대표단(단장: 체신부 부장 김학섭), 방중 후 귀환

- 7.3 ·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 위원장 김용순, 방북중인 프랑스 경제사절단(단장: 구라파-북한 관계촉진협회 부위원장 삐에르 세이라) 면담
- 광업부 중앙유색금속 소비지구 관리소 창립 20돌 기념 보고회, 한성룡 등 참가

- 7.5 · 김정일, 금릉2동굴 건설 유공 김치덕 소속부대 군인들에 감사 전달
- 김일성 사망 1돌 즈음 철도운수부문 연구토론회(철도부 군중 문화회관) 개최

- 7.6 · 정무원, 김일성의 경제부문 협의회 지도 1돌 즈음 결의모임(만수대) 개최, 강성산·홍성남·김윤혁·공진태 등 참석

- 7.8 · 금수산 기념궁전 개관식, 김정일 등 당·정 간부 참석
(개관사: 최 광)
- 7.12 · 김정일, 숙천군 농업연합기업소 국영 열두삼천협동농장 등
에 감사 전달
 - 김정일의 일생산 및 재정총화 방침 제시 25돌 기념 연구
토론회(인민대학습당), 장 철·김국훈·윤기정 등 참석
 - 김일성의 증산군 현지도 40돌 기념보고회 개최, 서윤석
등 참석
- 7.14 · 조평통 서기국 대변인, 쌀 제공 관련 중앙통신과 기자회견
- 7.16 · 김정일, 농촌에 자원 진출한 청진시 신암구역당위 부부장
등에 감사 전달
- 7.24 · 김정일,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성심 발휘한 대성요업
공장 초급 당비서 허일철 등에 감사 전달
 - 노동당-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, 상호 협조에 합의
- 7.25 · 세계직업연맹 대표단(단장: 연맹 위원장 안토니오 네토)
평양 도착
 - 일본 노동조합 총연합회 도쿄도연합회 대표단(단장: 회장
와타 다다시), 평양 도착
 - 노탄청년임산사업소 창립 30돌 기념보고회, 최완조·리찬
등 참석

- 7.27 · 중국 요녕사회과학원 대표단(단장: 부원장 왕준규) 평양 도착
- 조선노동당 대표단(단장: 당 중앙위 부부장 지재룡), 우크라이나 및 벨라루시 방문차 평양 출발
- 7.31 · 김정일, 사회주의 농촌 지원 모범 단위들에 감사 전달
- 8. 2 · 김정일, 농업생산 혁신 속천군 농업연합기업소 농업노동자 등에 선물 전달
- 김정일 논문 “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” 발표 10돌 기념보고회(인민문화궁전), 보고: 최태복
- 8. 3 · 김정일, 청류다리·금릉2동굴 건설 참여 군인들을 적극 원호한 경공업과학분원 화장품 시험공장 등 11개 단위에 감사 전달
- 8. 4 · 김정일, 청류다리·금릉2동굴 건설 참여 군인들을 적극 원호한 은하무역 등 39개 단위에 감사 전달
- 8. 5 · 김정일, 청류다리·금릉제2동굴 건설 참가 군인들을 원호한 건재공업부 운수 당세포 등 50여 단위에 감사 전달
- 8. 6 · 김정일, 평양시민에 대한 봉사사업 유공 관련 평양창광봉사 관리국 일꾼들에 감사 전달
- 8.7~8 · 네팔 공보 및 체신대표단 방북

- 8. 9 · 김일성·김정일의 고려봉사관리국 현지도 10돌 기념
 보고회(보고: 초급당 비서 이옥희)

- 8.11 · 김정일, 신발공업 발전에 기여한 평양구두공장 등에 감사
 전달
- 김일성 『친필비 제막식』 진행(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
 앞), 제막사: 김용순

- 8.12 · 김정일, 김일성 동상 건립에 공헌한 인민군 부대들에 감사
 전달

- 8.13 · 김정일, 인민에 봉사한 옥류관 일꾼들에 감사 전달
- 삼선비너스호 청진항 출항 예정 발표

- 8.14 · 김정일, 과학연구사업에 성과 이룬 김책공대 및 평양철도
 대학 과학연구집단에 감사 전달
- 기상수문연구소, 대동강 홍수 처리 지휘체계 전산화

- 8.15 · UN 식량 및 농업기구 국장 M.V. 스카이에, 평양 도착
- 중국 요녕 사회과학원 대표단(단장: 부원장 왕준유), 방북
 마치고 귀국

- 8.16 · 당·정 간부들, 용성기계연합총국 등 공장 참관

- 8.18 · 김정일, 평양시 운수연합총국 산하 무궤도전차 여성운전자
 들에 감사 전달
- 중방, 8.1 - 8.9간 북한지역 호우 시인 보도

- 8.19 · 김정일, 평양시 운수연합총국산하 무궤도전차 여성운전자들에게 감사 전달
· 유엔 식량 및 농업기구 국장 귀국
- 8.22 · 김정일, 검덕광업연합기업소 연 아연 생산을 도와준 철도부 사로청위원회 등에 감사
- 8.23 · 김정일, 저수지 건설에 위훈을 세운 정평군 사로청 등에 감사 전달
· 김정일, 사회주의 농촌 진지를 강화한 개성시 통계국 국장 양형식 등 4명에 감사 전달
· 천성청년탄광에 파견된 3대 혁명 소조원, 메탄가스공장 건설
- 8.24 · 국가과학원 생물분원 생물생학연구소, 질소세균비료 개발
- 8.25 · 김정일, 큰물 피해 수재민을 도운 국경경비대 이무길 소속 부대 군인들에 감사
· 김정일, 임업부 산하 평양시공급소 종업원 등에 감사
· 김일성 부자의 평북도 현지지도 30돌 기념보고회, 신의주시에서 진행
- 8.26 · 김정일, 신의주 지구 수재민들에게 의복류, 침구류 등 선물 전달
- 8.31 · 대동강여관 창립 40돌 기념 보고회,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진행

- 9. 2 · 수재조사관련 스위스 외무성 방북대표단 귀국
· 수재조사관련 UN 식량농업기구·UN 아동기금조사단 평양 도착
- 9. 4 · 나진-훈춘간 국경통로 개통
· 함경남도·강원도 근로자들, 삼림조성사업 관철 쫓기모임 진행
· 국제적십자, 적신월사연맹 및 국경없는 의사단체, 북한 수재 조사단 평양 도착
- 9. 6 · 카리타스 국제협조국장, 수재피해 시찰후 귀국
- 9. 7 · 함북 회령시, 당창건 50돌즈음 산원 건설
- 9. 8 ·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 대변인, 수재관련 남한 비난 담화발표
- 9. 9 · 김정일, 황해북도 수재민에 선물 전달
· 유엔 식량농업기구, 유엔 아동기금, 유엔 인도주의사업국 수재 조사단, 귀환
- 9.11 · 국제적십자, 국제적신월사, 국경없는 의사단체 수재조사단, 귀환
· 농근맹 중앙위, 제25차 전원회의(9.11~12) 개막
- 9.12 · KEDO-북한 경수로회담, 공동보도문 발표
- 9.15 · 조·중 국경다리(대흥단군 삼장-중국 화룡)준공식 거행

- 9.16 · 독립국가협동체 직업동맹총연맹 대표단, 귀국
- 9.17 · 북한 당국-기네 정부대표단간 회담 개최
· 경수로 협상 참가 북측대표단, 귀국
- 9.18 · 김일성 강원도 현지도 50돌 기념보고회, 원산시에서 개최
- 9.19 · 태국 사회과학연구협회 대표단, 평양 도착
- 9.21 · 김일성 노작 『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, 세부화의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기 위하여』 발표 30돌기념 연구 토론회 개최
- 9.23 · 김일성 평양곡산공장 현지도 50돌 기념보고회 개최
· 중앙방송, 조선민용항공총국 창립 40돌 기념보고회(9.21) 보도
· 김일성 국가계획위원회 당총회 지도 30돌 기념보고회 개최
· 김일성 전력공업부문 현지도 50돌 기념보고회, 청년중앙 회관에서 개최
- 9.24 · 백두산-천지호반간 공중여객삭도 완공·개통
- 9.25 · 기상수문국, 중국 기상국과 『기상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합의서』조인
- 9.26 · 당창건 50돌기념 사회과학부문 연구토론회, 인민대학습당에서 개최

- 9. 26 · 당창건 50돌기념 『여맹』 연구토론회, 중앙노동자회관에서 개최
- 9. 27 · 대외경제위원회 대표단, 스위스에서 귀환
 - 중국기상국 대표단, 귀국
 - 당창건 50돌기념 『농근맹』 연구토론회, 중앙노동자회관에서 개최
- 9. 28 · 당창건 50돌기념 『직맹』 연구토론회, 중앙노동자회관에서 개최
 - 외교부 대변인, 경수로협상관련 조선중앙통신과 기자회견
- 9. 29 · 용문대굴 준공식 개최
- 9. 30 · 미·북연락사무소 개설관련 공동보도문 발표
- 10. 1 · 낙원수출품수산사업소 조업 개시
- 10. 2 · 국가과학원 함흥분원, 카르보닐화에 의한 초산제조공정 조업 개시
 - 당창건 50돌기념 철도운수부문 연구토론회, 철도부회관에서 개최
 - 구현-인포간 전기철도 개통모임, 북창역에서 개최
- 10. 3 · 철산갑문 준공식, 현지 개최
 - 평북제련소, 김정일 현지도 사적비 제막

- 10. 4
 - 김일성의 『10월5일 자동화종합공장』 현지도 40돌 기념보고회 개최
 - 북한-리비아, 공동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최 및 『경제·문화분야의 협조에 관한 의정서』, 『'95~'97년도 공보 및 문화협조 집행계획서』 조인
 - 『9월21일 제련소』 새 생산계통 완공, 조업 개시
 - 회령 산원 개원

- 10. 5
 - UNDP 협조계획에 따른 『변압기 생산 현대화 대상』, 『환경건강 위험성 통계 대상』 완공, 조업 개시
 - 해주 『1월 10일 기계공장』 조업 개시
 - 영월화강석광산 조업 개시

- 10. 6
 - 『로동청년사』사옥 준공

- 10. 7
 - 평양철도대학, 김정일 현지도 사적비 제막
 - 풍서군, 김정일화 은실 개관
 - 고려신덕산 샘물합작공장, 조업 개시
 - 전자제품연합회사, 녹음기 조립공장 조업 개시
 - 김정일, 철도운수부문에 여객 열차 『3대혁명 붉은기호』와 『노동자호』 전달

- 10. 8
 - 과학자여관 개업
 - 『7월 6일 철도공장』, 전강재압연차 바퀴분공장 조업 개시

- 10. 8 ·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, 김일성 현지도 50돌 기념보고회 개최
- 사리원타올수출품공장, 완성직장 준공

- 10. 9 · 당창건 기념탑 준공
- 청류다리 및 금릉2동굴 개통
- 강선산업건설사업소, 창립 50돌 기념보고회 개최

- 10.12 · 평양-향산간 관광도로 개통

- 10.13 · 애국자석공장, 조업 개시

- 10.14 · 직맹대표단(직총 중앙위원장 주성일), 세계직업연맹
 위원장 이사회의 참가차 키프러스 향발

- 10.15 · 평원 수출피복공장 1단계 건설 완공·조업

- 10.16 · 라흥 채석선 철도전기화공사 완공·개통
- 농근맹 대표단(위원장 최성숙), 중국 향발

- 10.17 · 재일조선인 상공인대표단 귀국

- 10.18 · 평양 삼석구역에 김정일화 온실 건설·개관식 진행
- 선교편직공장에 노동당중앙위 감사문 전달모임 진행

- 10.19 · 순천방적공장 1단계 건설 완공·조업

- 10.21 · 유고연방정부 과학기술대표단(발전과학·환경보호상 안꼬
 라를로위츠), 평양 도착

- 10.22 · 정무원 자원개발부장 김세영(59세) 사망
- 10.23 · 북한-유고, 『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서』 조인(만수대 의사당)
 - 북한 : 국가과학기술위원장 최희정,
 - 유고 : 발전과학·환경보호상 안꼬 라를로위츠
- 미술·수공예품 전람회(10.17~23), 멕시코 국회의사당에서 진행
- 10.24 · 유고 연방정부 과학기술대표단(과학·환경보호상 안꼬 라를로위츠), 귀국
 - UNDHA(유엔 인도구호국)대표단, 평양 도착
 - KEDO 원자력발전소 건설 부지조사단 평양 도착
- 10.25 · 제1전력설계사업소, 창립 40돌 기념보고회 개최
- 10.26 · 농근맹 대표단(위원장 최성숙), 중국에서 귀환
- 10.27 · 『사로청』중앙위, 동맹 창립 50돌즈음 『전국 사로청원과 청년들에게 보내는 호소문』 발표
- 10.28 · 타일랜드 자유정의당 친선참관단(집행위원 싸위싸크 폰씨드자), 귀국
- 10.31 · 김정일, 안주시 등 살림집 건설에 기여한 노동자, 기술자, 사무원 등에게 감사

- 11. 1 · 김정일, 성산탄광, 칠리탄광 종업원들에게 감사 전달
- 11. 4 · 김정일, 평양시 피복공업총국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
 - 세계식량계획 대표단, 평양 도착
- 11. 5 · 김일성의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현지도 50돌 기념 보고회 개최
- 11. 7 · 창성군 약수리에 김일성 현지도 사적비 건립
- 11. 8 · 김정일, 흥부-연못동 도로공사에 기여한 대학들과 단위들에게 감사 전달
 - 김정일, 『재정금융사전』을 출판한 편찬 관계자들에 감사 전달
 - 유엔아동기금 대표단, 평양 도착
- 11.10 · 나진항-연변항 사이 정기선박 운행 개통 보도
- 11.11 · 일본 동아시아무역연구회 대표단(회장 혼마테 추지), 귀국
 - 북한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일본 동아시아무역연구회간 공동보도문 발표(평양)
 - 김정일의 일생산 및 재정총화방침 제시 25돌 기념보고회 개최(인민문화궁전)
 - 각 도 사로청 조직들, 사로청 창립 50돌 앞두고 결의대회 및 모임 진행

- 11.13 · 전국 재정은행일꾼 경험토론회 개최(인민문화궁전)
- 11.14 · 김일성이 평원군 원화협동농장 명예농장원이 되어 준 40
돌 기념보고회 개최
-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발단 20돌 기념 중앙연구토론회
개최(인민문화궁전)
- 사로청 중앙위 제8기 7차 전원회의 개최
- 11.15 · 김정일, 평양 대성피복수출품공장 등에 감사 전달
- 11.16 · 김정일, 인민대학습당에 재정금융사전 등 전달
- 11.17 · 묘향산 『단군사』를 원상대로 복구하였다고 보도
- 김정일 감사전달
- 11.18 · 김정일, 농촌주택 건설에 모범을 보인 온천군 등에 감사
전달
- 11.19 · 김정일,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노동자 등에 감사 전달
- 『여맹』 중앙위 제 5기 22차 전원회의 개최
- 11.20 · 전력공업부 대표단(부부장 박을영) 중국 방문차 평양
출발
- 11.21 · 사로청 대표단(위원장 최룡해), 일본 방문차 평양 출발
- 11.22 · 평양시 제3인민병원 개원

- 11.24 · 북한-루마니아(11.13), 유고(11.15), 마케도니아(11.20)
간 『협조에 관한 의정서』 각각 조인
- 김정일, 경제선동활동에 모범을 보인 육운총국 기동예술
선동대 대원들에 감사 전달
- 김정일, 제12화력발전소 건설사업소에 감사 전달

- 11.25 · 김정일, 육운총국 기동예술선동대 대원들에 감사 전달

- 11.26 · 김일성의 평안북도 첫 현지도 50돌 기념보고회 개최
(신의주)
- 김정일, 10월 석탄생산계획과 동발나무 생산계획 수행에서
모범을 보인 단위들에 감사 전달
- 세계식량계획과 국제자원봉사기구인 카리타스 제공 수해
복구물자 남포항 도착(11.24) 보도
- 전자자동화공업위 위원장 김창호, 사망

- 11.27 · 김정일, 『제2차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』
즈음하여 평안남도 3대혁명 기수 등에 감사 전달
- 북한-불가리아간 『협조에 관한 의정서』 조인
(11.23, 쏘피아)
- 직총대표단(부위원장 이진수), 노동총연맹 제45차대회
(프랑스) 참가차 평양 출발

- 11.28 · 김정일, 천동광산과 용광로 건설을 도와준 일꾼들에 감사
전달

- 11. 29 · 제2차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 개막, 제1일회의 진행(4. 25 문화회관)
- 11. 30 · 『제2차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』 제2일회의 및 폐막
- 12. 2 · 경제대표단(대외경제위 부위원장 김정우), 두만강지역 개발계획관리위원회 제6차회의(미국 뉴욕) 참가차 평양 출발
 - 제2차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국가표창 수여식 진행
 - 김정일의 함경북도 현지도 50돌 기념보고회 개최(청진)
- 12. 3 · 조·중 수력발전회사이사회 제48차 정기회의 결정서 조인(북경, 12. 1)
- 12. 4 · 김정일, 군인건설자들을 원호한 일꾼들과 단위들에 감사 전달
 - 김정일, 누에고치 생산에서 모범을 보인 금야군 사현협동농장에 감사 전달
- 12. 5 · 김일성의 함경남도 현지도 50돌 기념보고회 개최(함흥대극장)
 - 화학공업절 50돌 기념 중앙보고회 개최(중앙노동자회관)
- 12. 6 · 『직총』 창립 50돌 기념 중앙연구토론회 개최(인민문화궁전)

- 12. 7 · 김정일, 농촌진출 제대군인 등에 감사 전달
 - 사로청 대표단(위원장 최룡해), 일본 방문후 귀환
 - 『직총』 창립 50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개최(인민문화궁전)

- 12. 9 · 김정일, 군 원호사업에 모범을 보인 단위들에 감사 전달
 - 김정일, 금성거리 도로관리원으로 진출한 사로청원들에 감사 전달
 - 『직총』 중앙위 제30차 전원회의 개최(중앙노동자회관)
 - 수산부대표단(부부장 한용운), 조·러 어업 공동위원회 제9차회의 참가차 평양 출발

- 12.12 · 김정일,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등에 감사 전달
 - 김정일, 황해남도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감사 전달
 - 『농근맹』 중앙위 제26차 전원회의 개최

- 12.13 · 김정일의 농근맹 사업강화 관련 노작 발표 10돌 기념보고회 및 연구토론회 개최(중앙노동자회관)

- 12.14 · 전국 농근맹 선전일꾼회의 개최(중앙노동자회관)
 - 직총대표단(부위원장 이진수), 프랑스 노동총동맹 제45차 대회 참가후 귀환

- 12.15 · 김정일,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한 중앙과학기술홍보사와 농업과학기술원 수의학연구소, 축산학연구소에 감사 전달

- 12.16 · 제6차 전국프로그램경연(조선컴퓨터센터, 12.11~14)
 - 제3차 KEDO 부지조사단, 평양 도착

- 12.18 · 당중앙위, 사동구역 상업관리소 등에 『정춘실운동 모범 단위』 칭호 수여
 - 김일성의 순천시·안주시 현지도 50돌 기념보고회 개최
 - 경수로협상 대표단, 귀환
 -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창립 10돌 기념보고회 개최
- 12.21 · 평남 회창군에 『지방예산제 모범군』 칭호 수여
- 12.22 · 수산대표단(부부장 한룡운), 조·러 어업공동위 제9차회의 참가후 귀환
- 12.24 · 김정일, 해운부 대동강갑문 관리국 등에 감사 전달
- 12.26 · 김일성의 남포시 현지도 50돌 기념보고회 개최
- 12.28 · 강원도 청년수원지 준공식 진행

